

#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 연구\*

이보림\*\* | 원광대

## < 목 차 >

1. 서론
2. 히브리어 형태론과 관련 연구들
  - 2.1. 히브리어 형태론
  - 2.2. 관련 연구들
3.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 분석
  - 3.1.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 3.2.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 3.3. 노아와 셈
  - 3.4. 아브라함, 이삭, 야곱
  - 3.5.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히브리어 고유의 형태론적 체계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인명의 범위는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 본 논문은 201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스라엘(야곱)의 열 두 아들까지이며 그들 각각의 이름이 작명되는 배경을 단어 형성 과정을 통하여 조명하였다. 성서 히브리어는 셈어족에 속하는 고대 언어로서 각 단어의 자음만이 어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연속 형태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인명의 자음어근을 추출하여 그 어원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또한 히브리어 원어의 인명 발음을 제시하여 우리말 성경에 사용된 인명 표기와 비교하였다. 차이가 클 경우에는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었을 당시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의 한자어 표기와 발음, 그리고 중국어 발음도 비교 분석하였다. 히브리어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방식의 인명 음역도 원래의 의미를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이 인명의 원어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각주를 활용하여 어근의 의미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성서히브리어, 인명, 자음어근, 비연속 형태 체계

## 1. 서론

국어사전에서는 이름을‘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이프성경사전』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대개 생후 8일째 할례 시에 이름을 지었으며 그 이름을 짓는 일은 그 대상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름이 지닌 의미 또한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기념할 만한 명성과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람의 본질적 성격이나 특성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름의 변화는 인격(성격) 또는 신분(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sup>1)</sup> 구약성서에서 인명의 개념은 존재, 특성 및 명성을 의미하므로 ‘이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며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갖게 될 성격에 대한 부모의 희망 또는 기대를 묘사하는데 이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등의 이름 개명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고 구약성서의 신학적 용어집인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앞으로 TWOT로 칭함)의 저자들은 말한다.<sup>2)</sup>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명은 히브리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히브리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브리어는 셈어족(Semitic)에 속하는 언어로서 단어의 어근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특이한 형태학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단어의 어근을 이루는 자음들만을 비교함으로써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의 의미를 자음 어근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해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본론인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에 대한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형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몇몇 선행 연구들을 요약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 히브리어 성서 중에서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의 이름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명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 2. 히브리어 형태론과 관련 연구들

### 2.1. 히브리어 형태론

1)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2)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히브리어는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의 셈어(Semitic)파로 분류되는 언어이다. 구약 성경은 고전 히브리어(Biblical Hebrew)로 저술되었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현대 히브리어와는 차이가 있다.<sup>3)</sup>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셈어의 단어형성과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착어나 굴절어와는 달리 비연속 형태 체계(nonconcatenative morphological system)를 갖고 있다.

굴절어인 영어의 경우에는 ‘unavoidable’이라는 한 단어는 ‘avoid’라는 동사에 ‘un-’이라는 접두사와 ‘-able’이라는 접미사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morpheme)가 각각의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연속된 순서대로 합쳐져서 형성된다. 그러나 셈어의 형태소들은 연속된 순서로 합쳐지지 않는다. 셈어의 비연속 형태 체계는 McCarthy (1979, 1981)에 인용된 고전 아랍어의 예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 |     |               |                               |
|-----|---------------|-------------------------------|
| (1) | a. kataba     | he wrote                      |
|     | b. kattaba    | he caused to write            |
|     | c. kaataba    | he corresponded               |
|     | d. takaatabuu | they kept up a correspondence |
|     | e. ktataba    | he wrote, copied              |
|     | f. kitaabun   | book (주격)                     |
|     | g. kuttaabun  | Koran school (주격)             |
|     | h. kitaabatun | act of writing (주격)           |
|     | i. maktabun   | office (주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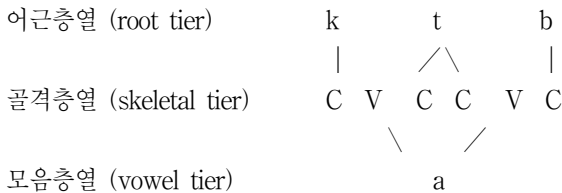
위의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의 다섯 예들은 동사형이며 나머지는 명사형인데 모든 단어들이 ‘(글을) 쓰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예들에 /k-t-b/라는 세 개의 자음이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쓰다’라는 의미가 결국 /k-t-b/라는 세 개의 자음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셈어

---

3)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형태론적으로 ‘지나가다, 건너가다’를 의미하는 ‘아바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와 히브리인들의 조상 중 한 사람이었던 ‘에벨(에베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학자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Harris(1941)가 성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러한 비연속 형태 체계를 현대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고 McCarthy가 1979년의 MIT 박사학위 논문과 그 후속 연구 등을 통하여 비연속 형태 체계로 이론화하였다. 즉, CV 형판(template)과 자음 어근, 모음 멜로디 등의 여러 층(tier)이 존재하며, 이렇게 여러 층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은 연결규약(association convention)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실제 단어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일한 자음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써 완료(perfective) 능동(active) 제II과생부류(binyan)에 해당하는 'kattab'의 형성을 도식화한 모양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2) kattab



골격층열 CVCCVC를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는 제2과생부류에 속하는 단 어임을 표시하고 자음어근층열 /k-t-b/가‘(글을) 쓰다’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모음층열의 ‘a’를 통해 이 단어는 능동 완료형이 된다. 반 면에 동일한 조건에 모음층열만 바꾸어 ‘u-i’를 사용하여 ‘kuttib’가 되면 제2 과생부류의 수동 완료형이 된다.

## 2.2. 관련 연구들

성경 인명(Biblical names)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 들이 어떻게 해서 한글 성경의 이름으로 정착되었는가 하는 음역 (transliteration)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Lee(2007)는 1800년대 말에 번 역된 한글성경은 주로 중국어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국 어 성경의 한자어 표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Peter’의 한자어 표기가 ‘彼得(피

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베드로’로 차용한 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열음은 모두 평음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서장국(2013, 2015)은 우리말 성경이 1882년에 최초로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으므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봉형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어 문자가 아닌 중국어 발음을 기본으로 차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Persia’의 중국식 표기는‘波斯(파사)’이고 발음은‘보시’인데 우리말 성경에서‘파사’로 차용했고‘Tamar’라는 인명은 중국어 표시가 ‘他瑪(타마) 이나 발음은‘다마’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다말’로 차용한 것 등의 예를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봉형(2013)과 서장국(2015)은 중국어의 문자나 발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중국어 성경 외에도 히브리어나 헬리어 원어 또는 영어도 함께 참고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발음 원칙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원어의 /b, p, f/, /d, t/, /g, k, q/ 등의 파열음이 우리말 성경으로 차용될 때 격음은 사용되지 않고 모두 평음인 /ㅂ, ㄷ, ㄱ/로 차용되었다. 또한 /s, ʃ/는 조음 장소의 차이가 있는 자음들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구별이 없이 /ㅅ/ 으로만 차용되다보니 영어 성경의‘Seba, Sheba’(창세기 10:7)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둘 다 ‘스바’로 기록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자음 중 ‘바브/와우(1)’로 불리는 자음의 음가는 /v/로 보는 학자들과 /w/로 보는 학자들이 현재도 공존하고 있어서 정확한 음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항상 /w/로 음역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음어근을 표기할 때 /w/로 표기한다.

### 3. 히브리어 성서의 인명 분석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로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서,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그 이름이 형성된 배경을 각 이름의 자음 어근을 분석하고 그 어근의 어원과 유래를 따져서 각 이름의 배경과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쓰인 각 인명의 고대 히브리어 문자와 발음은 『구약장절원어분해성경』(1994)을 참조하였다. 인명의 어

원 추적과 의미 파악은 스트롱코드(Strong Code)의 번호를 따라 단어의 번호를 붙인 BDB사전(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과 TWOT를 주로 참조하였다.<sup>4)</sup>

### 3.1.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곱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다(창세기 1:27). 이 때 ‘사람’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다.<sup>5)</sup> 이 후 ‘아담’은 최초의 남자 인간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 또는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계속 사용된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또는 이브)의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에 의해 최초로 명명되고 그 이전에는 남자(이쉬)에 대응하는 용어인 여자, 또는 아내라는 의미의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된다.<sup>6)</sup>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최초로 사람을 만들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의 남자와 여자는 ‘이쉬, 이쉬’가 아닌 ‘자칼’과 ‘네케바’로 남성 또는 수컷, 여성 또는 암컷, 즉 영어로 표현하

- 
- 4) 스트롱 코드는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미국 신학자가 구약과 신약의 원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그리스어)의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놓은 사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번호는 모두 이 번호이다.
  - 5)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글자를 쓰는데, 히브리어 자음 문자는 알레프에서부터 타우에 이르는 22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또한 각 글자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는 표의문자이다. 히브리어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어 문서를 해석할 때 자음 하나하나의 뜻을 풀이하여 한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이른바 파자를 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본 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논지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 6) ‘이쉬’와 ‘이쉬’는 각각 남자 또는 남편과 여자 또는 아내를 의미하는데 각 개인으로서의 남녀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인다. 여자를 의미하는 ‘이쉬’는 남자를 의미하는 ‘이쉬’에서 파생되었으며, 두 단어의 자음 어근은 /ʔ-f/로 동일하다. ‘이쉬’는 스트롱코드 0582의 ‘에노쉬’의 축약형인데 이는 (죽음, 즉 mortal) 일반적인 인간’을 의미하며, 이 단어의 어원은 다시 0605의 ‘아노쉬’로 추적할 수 있다. ‘아노쉬’는 ‘허약한, 미약한, 절망적(으로 사악한), 불치의, 병든, 비참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면 ‘male, female’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다.<sup>7)</sup>

우선 ‘아담’(0120)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은 ‘아담’으로 동일하다. 그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담’(0119)이 그 어원으로서 이 두 단어에 쓰인 자음어근은 /ʔ-d-m/로 동일하다. 첫 자음은 히브리어 맨 처음 자음인 ‘알레프(א)’로서 음가는 /ʔ/으로 성대를 조였다가 열 때 나오는 성문 폐쇄음이나 우리말로 음역할 때는 아무런 음가도 없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할 때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고, ‘흙’은 ‘아파르’이다.<sup>8)</sup> ‘아다마’의 자음만 추출하여 비교하여보면 아담에 ‘헤’(/h/)라는 자음 한 글자만 덧붙이면 되는데 ‘붉은 경작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sup>9)</sup>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 . .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할 때 처음 언급된 흙은 ‘아다마’인 반면에 나머지 두 번 언급된 흙은 ‘아파르’이다. 어쨌든 ‘땅, 흙’의 의미를 가진 ‘아다마’와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은 ‘붉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연관성이 있다.<sup>10)</sup> ‘아담’은 또한 여자의 반대말로써 ‘남자’라는 뜻도 가지는데 TWOT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아담’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그 후에는 남자, 사람, 남편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인 ‘이쉬’와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담’을 고유명사로 번역하는 시점은 우리말 성경(개역개정)과 영어 성경(NIV)이 다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9절에서부터 고유명사

- 
- 7) ‘자칼’(히브리어 발음은 ‘자카르’)의 어근 자음은 /z-k-r/인데 그 어원은 ‘기억하다, 알아보도록 표시하다, 기록하다, 남성, 남성이 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네케바’의 어근은 /n-k-b/이고 그 어원은 ‘구멍을 뚫다, 쪼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유다 왕 요아스 시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받기 위하여 상사 뚜껑에 구멍을 뚫은 사건에서 기원한다고 TWOT는 밝히고 있다.
- 8) 우리말 성경에서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에레츠’로 쓰이는 경우(창1:1 등)와 ‘아다마’(창28:14,15 등)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9) 히브리어 ‘헤(ה)’는 모음으로도 사용되는 자음인데 ‘아다마’에서의 ‘헤’가 모음으로 쓰였다.
- 10) 라틴어에서도 ‘homo’는 인간(man), ‘humanus’는 인류(human), 그리고 ‘humus’는 ‘땅, 흙’을 의미한다.



‘아담’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은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내용에서 처음으로 ‘아담’을 고유명사로 사용하지만, 그 후에도 (여자) 상대가 없는 상태의 ‘아담’은 계속하여 사람(man)으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3장 17절에서야 비로소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의 이름을 ‘亞當’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한국어로 ‘아담’이라 읽고 중국어 발음은 ‘야당’이다. 이 이유는 아마도 중국어에는 음절말에 /m/이 오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자어 음독도 아니고 중국어식 발음도 아닌 원어의 발음을 차용한 것을 볼 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참고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대에도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는 남자의 이름으로 종종 쓰이는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18세기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있다. 이태리어로는 ‘아다모’라고 하는데 유명한 가수의 이름이기도 하다.<sup>11)</sup>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2:22-23)에서처럼 처음에는 단지 남자(이쉬)의 상대로서의 명칭인 여자(이쉬)로 칭해진다.

고유명사인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에서 최초로 언급된다. ‘하와’(02332)는 히브리어 문자 헤트-바브-헤(/h-w-h/)의 세 자음으로 구성되며 ‘바브’라는 문자가 ‘와우’와 혼용되므로 원래의 발음은 ‘하비’ 또는 ‘하와’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동일한 자음의 어원(02331)은 ‘호흡하다’를 의미하고 또 다른 어원(02421)은 ‘살다, 생명을 갖다, 살아남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 자의 어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엠 콜 하이’로서 ‘엠’은 ‘어머니’를 ‘콜’은 ‘모든’을 의미하므로 ‘하이’가 ‘산 자의, 살아있는 것의’의 의미를 갖는다.

‘하와’는 한자로는 ‘夏娃(하와)’라고 쓰고 ‘샤와’로 발음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하와’로 옮겼다. 아랍어에서는 ‘Hawa’ 헬라어에서는 ‘Eva’ 서반아어에서는 ‘Evita’ 영어에서는 ‘Eve’ 등이 동일한 이름이다. 이렇듯 히브리어 자

11) 이 정보는 인터넷 <http://www.behindthename.com>에서 발췌하였다.

음 바브/와우를 서양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v/로 음역하고 있다.

### 3.2.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인의 히브리어 발음은 ‘카인’이며 어근 자음은 /k-y-n/으로 가운데 자음은 경구개 활음으로 발음기호로는 /y/ 또는 /j/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 단어(07014)는 ‘소유’를 의미하는데 가능한 어원은 동일한 발음의 어원(07013)은 무기로서의 ‘창’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어원(07069)은 ‘카나’/k-n-h/로서 ‘얻다, 획득하다, 창조하다, 소유하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sup>12)</sup> 성경에 서술된 ‘득남하다’를 의미하는 구절이 ‘카니티 이쉬’인데 ‘카니티’는 ‘카나’의 변형이고 ‘이쉬’는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후자로 보는 것이 맞겠다.

반면에 가인의 동생 아벨의 탄생은 바로 다음 절에 “그가[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창4:2)”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아벨의 히브리어 발음은 ‘헤벨’이고 어근 자음은 /h-b-l/로서 ‘숨, 증기, 공허, 헛되이 행동하다, 공허하게 되다, 공허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스트롱 사전 01893, 01892, 01891)<sup>13)</sup> 아벨의 이름의 한자식 표기는 ‘亞伯(아백)’이고 발음은 ‘야부어’인데 맨 앞 자음 /h/의 탈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원어의 /l/을 음절말에 사용한 것도 위의 아담의 이름에서와 같이 원어 또는 영어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TWOT는 아벨의 이름 지음에 관하여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에

12) ‘창(spear)’을 의미하는 어원에서는 겐 족속(Kenites)의 이름이 파생되었고 하는데 이 족속은 가인의 후손은 아닌데 그들의 직업(대장장이)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고 TWOT는 설명하고 있다.

13) 히브리어 자음 ‘헤’(/h/)는 헤벨이 아벨이 되듯이 다른 언어의 음역에서 주로 삭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헤트(/h/)’는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자음으로 목의 뒤쪽에서 발음되는 무성 마찰음으로서 주로 /ㅎ/로 음역된다.

관하여 결코 중요한 의미가 없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창세기의 거의 모든 인명이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아벨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혹자는 아카디아어의‘아들’을 의미하는‘아블루/아플루’에서 파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바람, 숨(호흡)’기본적인 의미에‘우상, 단명, 공허, 일시적’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아벨이 형인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다.

아벨의 죽음 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라고‘셋’의 탄생과 이름 지음이 설명되어 있다. ‘셋’의 히브리어 발음은‘셋트’이며 어근 자음은 /ʃ-t/이다.

한자어로는 塞特(새트)이고 발음은‘셋터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셋’으로 번역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말 번역시 /s/와 /ʃ/의 구별이 없는 점과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도 음절말에 /t/ 발음이 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숫자‘3’을 의미하는 ‘셋’과 문자와 발음이 같게 되어서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차라리 ‘세트’로 음역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어근 /ʃ-t/는 보상(08352)을 의미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어근(primitive root)‘쉬트’(07896)로 연결되는데 이 어근은‘놓다, 두다, 임명하다’등의 의미를 갖는다. 하와가 아들을 낳으며“하나님이 .... 다른 씨를 주셨다”할 때 ‘주셨다’는 단어가 바로 이‘쉬트’의 변형인‘쉬트’이다. 그러나 TWOT는‘쉬트’가 여기에서처럼‘주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sup>14)</sup>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2절에“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에서 남자와 여자는‘자칼’과‘네케바’이며 사람은 물론‘아담’이라는 단어이다. 3절에서“아담이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

14) ‘쉬트’에서 파생한 단어 중 하나가 옷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로 ‘쉬트’가 있는데 영어의 ‘정장, 옷’을 의미하는 ‘suit’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에서 보듯이 이제 아담의 계보에서는 가인도 아벨도 언급되지 않고 곧장 ‘셋’으로 연결된다.<sup>15)</sup>

### 3.3. 노아와 셋

‘셋’의 8대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은 ‘노아’인데 그의 이름은 창세기 5장 29절에 처음 등장한다. “라멕이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창5:28,29).” ‘노아’의 히브리어 발음은 ‘노아흐’이며 어근 자음은 /n-ḥ/이다. BDB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사전에서는 ‘안식’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05116)는 스트롱 코드(Strong Code 사전) 번호 05118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누와흐’ 또는 ‘노와흐’(/n-w-ḥ/)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었다고 설명하고 05118은 원시 어근인 05117(누와흐)에서 유래한다고 분석한다. 05117은 동사형으로서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TWOT에서는 ‘노아’라는 인명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며 창세기 5장 29절의 말장난(word play)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에서 ‘안위하다’의 의미를 갖는 ‘나함’동사의 한 형태(피엘형 동사)와 노아의 이름이 연결된다는 것이다. ‘나함’동사의 자음어근은 /n-ḥ-m/이며, 이 동사는 ‘안식, 구원’을 내포하는 ‘누와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노아는 홍수 전에 세 아들을 두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셋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셋’의 이름만을 논의하도록 하자.<sup>16)</sup> ‘셋’의

---

15) ‘셋’의 아들 ‘에노스’는 창세기 5장 6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발음은 에노쉬이며 어근 자음은 /ʔ-n-š/이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면 위에서 보았던 ‘사람, 남자,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 ‘이쉬’의 어원인 0605 ‘아노쉬’로 합쳐진다.

16) ‘함’의 경우의 ‘ḥ’은 히브리어 ‘헤트/ח/’로서 중국어에서도 ‘숨(함)’으로 표기된다.

히브리어 발음은 ‘솜’이고 자음 어근은 /ʃ-m/이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에서 ‘솜’은 보통명사로 ‘이름’을 의미한다. 어원인 스트롱 코드 08034 ‘솜’의 의미가 ‘이름, 명성, 영광, 기념’ 등이다. 이 단어의 어원을 BDB는 07760의 ‘수움’ 또는 ‘시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놓다, 두다, 임명하다, 만들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반면에 TWOT는 정확한 어원을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아랍어 어근으로서 ‘표시하다 또는 낙인을 찍다’의 의미를 가진 /w-s-m/에서 파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이름’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구별하는 외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3.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을 지칭할 때 구약성서에서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언급된다. 이제 이스라엘 조상 삼 대를 구성하는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소유자 솜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한다. 아브라함의 출생시 이름은 아브람으로서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람의 히브리어 발음은 ‘아브람’이며 자음 어근은 /ʔ-b-r-m/의 네 글자이다. 한자로는 ‘亞伯蘭(아백란)’이라고 쓰고 ‘아브엘란’이라고 읽는다. 스트롱 사전 087번으로 ‘고귀한 아버지’를 뜻하며 048번 ‘아비람’의 축약형이라고 한다. ‘아비람’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ʔ-b/)(01번)에 07311번의 원시어근 ‘루움(/r-w-m/)’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어나다, 높다, 숭고하다, 높아지다’ 등의 의미로서 물리적인 높이와 ‘영광, 고양, 칭찬’ 등의 추상적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다가 99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다.<sup>17)</sup> 이 사건은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17)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은 때에 ‘사래’에서 ‘사라’로 개명된다.(창17:15) ‘사래’의 히브리어 발음은 ‘사라이’고 자음어근은 /s-r-y/이며 ‘사라’의 히브리어 발음은 ‘사라이’고 어근은 /s-r-h/이다. 사래의 마지막 자음은 히브리어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어근의 자음 하나가 중간에 추가되어 /ʔ-b-r-h-m/이 된다. 아브라함은 한자로 ‘亞伯拉罕(아백랍한)’이라고 쓰고 ‘아브얼라한’이라고 읽는다.<sup>18)</sup>

BDB 사전은 이 단어(085번)가 ‘아브’와 사용되지 않는 어근으로서 ‘인구가 많은’을 뜻하는 단어의 축약일 것으로 추정하여 ‘다수의 아버지’ 또는 ‘다수의 우두머리’로 해석한다. TWOT는 좀 더 자세한 어원을 제시하는데 아랍어 명사로서 ‘다수’를 의미하는 ‘루하문’에서 왔다는 주장과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많은 민족’에서 ‘많은’을 의미하는 단어 ‘하모운(01995번)’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01995번의 어원은 01993번의 ‘중얼거리다, 소리 지르다’의 의미를 갖는 ‘하마’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들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그 이름까지 정해주신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명하신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웃다’라는 의미인데 ‘웃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스트롱 사전 06711번의 ‘차하크’이고 자음어근은 /ts-h-k/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어에서 이름이 파생되면서 앞에 요드를 붙여서 /y-ts-h-k/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라고 발음한다.

이삭의 이름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사건에서 유래한다. 이 사건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라고 기록되어

---

자음 ‘요드’로서 음가는 경구개 활음에 해당한다. ‘사래’와 ‘사라’의 의미는 모두 ‘공주, 왕자’를 뜻하여서 사라의 개명은 의미의 변화보다는 아브라함의 개명과 더불어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창17:16 참조)

18) 히브리어 ‘헤벨’이 우리말(아벨)이나 중국어, 영어 등에 차용될 때 /h/가 탈락된다고 했는데 동일한 발음인 /h/가 아브라함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Abraham)에 모두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될 때 유일한 어근의 변화인 /h/가 삭제되면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다.

있다. 사라도 또한 그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여 아들을 예고하자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는다(창18:12). 그 후 아브라함이 백 세 되던 해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 ‘이츠하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21:6).”라고 말하여 ‘차하크’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한다.<sup>19)</sup>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아들 쌍둥이를 얻는데 그 중 동생이 야곱이다. 야곱의 출생과 작명은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곱의 히브리어 발음은 ‘야아코브’이고 자음어근은 /y-ʕ-k-b/이다.<sup>20)</sup> 이 이름은 스트롱 사전 06117번의 원시어근 ‘아카브’/ʕ-k-b/에서 파생되었는데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 (책략 등을 통해)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왔다, [남의 지위 등을] 빼앗다’의 의미를 갖는다. 한자로는 ‘雅各(야각)’이라고 쓰고 ‘야꼬’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야곱’으로 음역한 것 또한 원어 또는 영어의 영향으로 보인다.<sup>21)</sup>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쥐고 태어났으므로 이 이름을 갖게 되지만, 그 이후 팔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까지 훔친 사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책략들에서 어근의 또 다른 의미를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다. 야곱의 이름에 대하여는 창세기 27장 26절의 “에서가

19) 이름 앞에 요드를 덧붙이는 예는 이삭 외에도 뒤에서 설명할 이스라엘의 이름과 또한 이삭의 이복형제인 이스마엘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 ‘쉬마’(/ʃ-m-ʕ/)에서 파생되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이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창세기 16장 11절의 사건에서 유래한다.

20) /ʕ/은 히브리어 자음 ‘아인(א)’의 음가인데 알레프의 음가 /ʔ/과 마찬가지로 목 뒤 인강에서 나는 발음으로서 우리말에서는 음역되지 않는다.

21) 영어에서는 Jacob이라고 하여 신약성서에 나오는 James(‘야고보’)와 동일한 이름이다. 히브리어 ‘야아코브’가 헬라어에서는 ‘이아코보스’로 라틴어에서는 ‘이아코부스’로 음역된 것과 연관이 있으나 영어에서는 첫 자음인 활음(/y, j/)을 유성 파찰음 /dʒ/로 음역하였다.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중략]"라고 한탄하는 형 에서의 대사에 잘 드러나 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난 후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하여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간 일하고 책략으로 큰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에서를 만날 걱정에 압복강나루에서 혼자 남아 있던 중 어떤 사람을 만나 밤새 싸우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지만 끝내 그의 축복을 받아내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 27-28절에“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인데 자음어근은 /y-s-r-ʔ-l/이다. 이 단어는 08280번의‘사라’(어근 /s-r-h/)와 하나님을 의미하는‘엘’이 축약된 형태에 이삭이나 이스마엘의 이름에서처럼 앞에‘요드’(/y/)를 붙인 것이다.‘사라(/s-r-h/)'는 동사로서‘싸우다, 힘을 갖다’의 의미를 가지므로‘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WOT는‘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인 항복(yielded submiss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야곱의 허벅지 부상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하나님과 싸워서 힘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결국 이 이름은 히브리인 국가의 이름이 되며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된다.

### 3.5.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은 순서대로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시불론, 요셉,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제외한 열한 명의 아들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기 이전에 출생한다. 장남의 이름 르우벤‘아들을 보라’에서부터 막내아들의 이름 베냐민‘오른손의 아들’까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즉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레아보다 라헬에게 있다. 그러나 레아가 먼저 아들을 넷 두게 되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으로 히브리어 발음은 ‘레우벤’이고 자음어근은 /r-ʔ-w-b-n/이다. ‘보다’라는 의미의 어근 ‘라아(/r-ʔ-h/)’에 아들을 의미하는 ‘벤’이 합쳐진 형태이다.<sup>22)</sup> 둘째 아들 시므온의 히브리어 발음은 ‘쉬므온’이고 자음어근은 /ʃ-m-s-w-n/인데, ‘듣다’라는 의미의 어근 ‘쇼마(/ʃ-m-ʃ/)’에서 유래하였다. 셋째 아들 레위의 히브리어 발음은 ‘레위’ 또는 ‘레비’이고 자음어근은 /l-w-y/인데 ‘연합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라바/라와(/l-w-h/)’를 어원으로 한다. 넷째 아들 유다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후다’이고 자음어근은 /y-h-d-h/으로서 ‘던지다, 쏘다’의 의미를 갖는 원시어근이나 히필형(사역형)으로 사용될 때 ‘감사를 드리다, 찬양하다’의 의미를 갖는 ‘야다(/y-d-h/)’에서 유래한다. 이상의 레아의 네 아들의 이름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에 걸쳐 레아가 아들을 출산하며 작명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심정을 담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며 이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레아의 말 속에 모두 담겨져 있다.

그 다음의 두 아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라헬이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얻게 되는 단과 납달리이다. 단은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이며 자음어근은 /d-n/인데 ‘다스리다, 판단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딘/단(/d-n/)’이 어원이다. 납달리의 히브리어 발음은 ‘나프탈리’이며 자음어근은 /n-f-t-l-y/인데 ‘파탈/f-t-l/’의 니팔형(수동형)의 의미인 ‘찌름하다’에서 유래한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창세기 30장 6절과 8절에서 라헬이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를 판단하시어(우리말 성경에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라고 의역하고 있음) 아들을 주셨다는 말과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말에 들어 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갓과 아셀이다. 갓의 히브리어 발음은 ‘가드’이고 자음어근은 /g-d/인데 이 어근은 ‘행운’의 의미한다. 아셀의 히브리어 발음 ‘아쉐르’이며

22)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벤허’도 ‘홀(영어식 발음이 ‘허’)’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명이다. 영어 이름 중 Johnson이 John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유래를 가졌다 할 것이다.

자음어근은 /ʔ-f-r/인데 동일한 자음의 어근‘아좌르, 아쉐르’는 본래‘바르다, 곧다, 직행하다’를 의미하지만 피엘형으로 사용되면‘행복이나 선을 표명하다’라는 의미를 담는다. 이들의 이름 역시 레아가 작명하는데 창세기 30장 11절과 13절에서 실바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을 때 각각‘복되도다, 기쁘도다’라는 레아의 말에서 유래한다.

그 후 레아가 또 다시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 그들이 잇사갈과 스블론이다. 잇사갈의 히브리어 발음은‘잇사카르’이고 자음어근은 /y-s-s-k-r/인데 이는‘보수, 급료, 보상’을 의미하는 어근‘사카르(/s-k-r/)’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스블론의 히브리어 발음은‘제블룬’이고 자음어근은 /z-b-l-n/인데‘높이다, 고귀하게 살다’라는 의미를 갖는‘자발(/z-b-l/)’에서 파생하였다. 이 이름들은 창세기 30장 18절과 20절에서 레아가 남편에게 시녀를 준‘값’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여 잇사갈의 이름을 짓는 것과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스블론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각각 유래한다.

야곱에게 열 명의 아들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라헬에게도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요셉이요 그 다음이 베나민이다. 라헬은 베나민을 낳고는 사망한다. 요셉의 히브리어‘요세프’이고 자음어근은 /y-s-f/이다. 이 어근의 어원은 ‘더하다, 증가하다’는 의미의 ‘야사프(/y-s-f/)’에서 파생되었는데 창세기 30장 24절에서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의 동생을 해산하며 몹시 고생을 하는데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은 곧 아버지 야곱에 의해 베나민으로 개명된다.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되지만 위의 열한 아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름의 의미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베노니는 아들을 의미하는‘벤’과‘오니’의 합성어인데‘오니(/ʔ-w-n-y/)’는‘슬픔, 곤란’등을 의미하는 어근‘아벤/아웬’(/ʔ-w-n/)’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결국‘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개명된 이름 베나민은 역시 아들을 의미하는‘벤’과‘야민’의 합성어이고‘야민(/y-m-n/)’은‘옳은, 오른쪽, 오른손’을 의미하므로 베나민의 의미는‘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비연속 형태 체계적 분석에 의해 보다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름에서부터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12지파의 이름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고전 히브리어는 셈어족(Semitic)에 속하는 언어로서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어근 형태소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이한 형태학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명에 쓰인 자음어근을 파악하고 그 어원을 추적함으로써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과 우리말 성경의 음역에 사용된 발음의 차이를 제시하고 18세기 말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었을 당시 번역의 기본이 되었다는 중국어 성경의 한자어와 발음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말 성경에 쓰인 음역의 유래를 추론해 보기도 하였다.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고유명사를 원어에 가깝게 음역한다고 해서 독자들이 그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성경 번역본이든 각 이름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주석으로 달아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구약장절원어분해성경』 도서출판 로고스. 1994
- 『디렉스성경찬송』 Version 4.6.4. Appbank Co. Ltd. Libros, Referencia.
- 『라이프성경사진』 생명의 말씀사. 2006.
- 서장국. 「영어이름의 의미와 그 어원적 특성에 관한 고찰」, 『진리논단』 제 18호. 81-95. 백석대학교. 2010.
- 서장국.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고유명사 차용어의 음역에 관한 문제」. 『한국중원언어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
- 이봉형. 『차용어 음운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Brown, E., S. Driver, and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 Harris, R. L.,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TWOT]
- Harris, Z. Linguistic Structure of Hebrew.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62. 143-167. 1941.
- Lee, P. Three types of laryngeal feature adaptation in Korean Secondhand loanword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3,3. 521-537. 2007.
- McCarthy, J. Formal Problems in Semitic Phonology and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1979.
- McCarthy, J. A Prosodic theory of nonconcatenative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2. 373-418. 1981.
- Strong, J. The New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 Suh, C. Some issues of transliteration of proper names in the Korean Bible. The 19th ICKL & 16th Harvard-ISOKL. 학회발표자료. 2015.
- <http://www.behindthename.com/>

*Abstract***A Study of Biblical Hebrew Personal Names**

Lee, Borim(Wonkwang Univ.)

This study aimed a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ebrew Biblical personal names through the nonconcatenative morphological framework. The scope of the analysis ranges from Adam and Eve, the first humans, to the twelve sons of Israel (or Jacob), tracking their naming processes in detail. Biblical Hebrew is one of the Semitic languages, where a consonantal root itself conveys the lexical meaning of the word. In this study, therefore, the consonantal root of each name was taken out to be compared with its original root(s), and its meaning could be tracked down. Original pronunciations were presented to be compared with those in the Korean Bible, and when it was necessary Chinese characters and pronunciations were provided for comparison, because the first Korean Bible wa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Bible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suggested tha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ders the hidden meanings of the Biblical Hebrew proper names may be presented in the footnotes in any translated versions of the Bible.

■ Key-words : Biblical Hebrew, proper names, consonantal roots, nonconcatenative morphology

접수일자: 2016. 10. 13	심사일자: 2016. 12. 21	게재결정: 2016. 12. 25
--------------------	--------------------	--------------------

